

SK, 예멘 LNG 본격 생산 ... 한국지분 21%

SK(대표 신현철)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예멘 LNG 개발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SK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분 참여기업간에 이사회를 열어 최종투자 결정을 내리고 2008년 상업생산 개시를 목표로 LNG 액화공장과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29일 발표했다.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국내에서 SK컨소시엄(SK·한국석유공사·삼환 10%)과 현대중합상사(6%)가 참여하고 있다.

해외기업으로서는 예멘 국영 가스회사(23.10%), 미국의 헌트(18%), 프랑스의 Total(42.90%)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참여사들로부터 일정비율로 지분을 나눠 받아 6%를 추가 취득할 예정이어서 한국 지분율은 약 5% 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최종투자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예멘 남부 해안의 발하프항에 670만톤의 천연가스 액화공장이 건설되고 길이 320Km의 파이프라인도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된 LNG는 2008년부터 20년간 한국에 200만톤씩, Suez LNG Trading과 Total Gas & Power를 통해 미국에 455만톤씩 공급된다.

<화학저널 2005/08/31>